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62)

# 去朝中朋黨難

거 조 중 봉 당 난

## 조정안의 봉당을 제거하기 어렵다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요즘 정치권에서 역사문제 끄집어내어 핏대를 내어 따진다. 흥법도와 백선엽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승만과 김구를 둔 논란도 있다. 이 논란은 주장하러 가는 사람이 자기 진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상대방에게 빨갱이 혹은 친일파의 모자를 씌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사 논란이 정말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하려는 것일까? 이는 역사평가가 아니라 역사평가의 남용(濫用)이요 오용(濫用)이다.

역사평가를 남용한 예는 많다. 아마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역사의 오남용은 역사가 공산사회에 도달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과정으로 이해한 마르크스의 역사론이 아닌가 한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원시공산사회,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사회를 거쳐서 유평파적인 공산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과연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주장이고 생각이요 이념일 뿐 실제의 역사를 그렇게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을 믿은 나머지 좀 더 일찍 억지로라도 공산사회를 건설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역사의 자연적 흐름에 따라가기는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해서인지, 힘으로 제정러시아를 무너트리고, 이른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었다. 하지만 목표는 달성되지 못한 채, 고르바에 의하여 소련은 종말을 고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독재체제를 만든 푸틴만 남았다. 북한도 공산사회를 이루겠다고 주장하지만, 만들어 낸 것은 김씨왕조였으니 이것도 역사 오남용의 가장 심각한 예일 것이다.

또 마오쩌둥은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 나려고 역사 인물 가운데 공자를 불러서 비판하고 진시황을 추켜세웠다. 이른바 비공양진(批孔揚秦)이다. 공자는 복고주의자이고 진시황제는 개혁주의자였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중국 사회를 공산사회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진시황처럼 공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복고(復古)를 주장한 공자 때려 부수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공자의 무덤이 있는 공림(孔林)에는 마오 집에 홍위병이 공자묘지에서 부렸던 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은 전 세계에 공자를 알리려고 공자학원을 만들어 공자를 추앙하고 있으니 같은 공산주의, 같은 나라에서도 선후로 역사평가가 달라졌다. 그러

니 그들의 역사평가란 믿을 수 없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던 역사를 도구로 삼은 것뿐이다.

사실 공자는 복고주의자 임이 틀림없다. 그가 살던 춘추시대는 중원지역에 막 철기 문명이 들어오던 시기였다. 그동안 도구란 대부분이 목기(木器)나 석기(石器) 그리고 소수의 청동기(靑銅器)였으니, 효율적이면서 다량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철기의 등장은 산업현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재빨리 철기를 이용한 사람들은 비록 귀족이 아니었다고 하여도 많은 부(富)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 그렇지 못한 귀족은 몰락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혼란으로 인식한 공자는 예제(禮制)에 의하여 움직였던 과거의 질서 있는 사회가 무너진다고 보고 과거처럼 예제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의 복구를 갈망하였고, 그 시대로 돌아가 극기복례(克己復禮)하자는 복고(復古)를 주장하였다. 그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주장이었다.

진시황제 시대는 철기가 극도로 많아져서 이제는 철기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배자가 되는 시대였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철기의 발달을 새로운 문명이나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진보적 성향의 시대였다.

그러고 보면 공자의 시대에 복고적 주장은 당연하고, 그 200~300년 뒤인 진시황 시대는 더 이상 예제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문명이 자리 잡았던 시대였으므로 진시황의 등장은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공자가 나쁘고 진시황이 좋거나 그 반대의 주장은 역사 환경을 모르는 무식함에서 나온 평가일 뿐이다.

각설하고 흥법도가 만약에 100년 뒤에 공산주의가 독재체제를 만드는 수단으로 될 것을 알았다면, 그는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백선엽도 만주 육사를 입학할 때 일본제국이 곧 망할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육사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일을 알 수 없었던 이들은 다만 자기가 처한 현실이 충실하며 그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놓고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역사를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라.'는 실천처지(設身處地)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일이다.

어설프게 좋거나 나쁘다는 역사평가를 하느니보다 차라리 담담하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나은 것이다. 남송 효

종(孝宗)은 금(金)과 겨우 맹약(盟約)하고 전쟁을 멈춘 황제다. 이제 금에 대해 대비도 해야 했고, 민생도 챙겨야 했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슬금슬금 봉당(朋黨)이 곱들거렸다. 봉당은 겉으로는 국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개인의 잇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치고, 또 경쟁상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봉당이 가져온 폐해를 보려고 역사를 훑어보았다. 후한대에 환관들이 부패하자 태학생들이 청의(淸議)운동을 벌였고, 이에 환관은 이들이 당(黨)을 만들었다고 하여 당고(黨錮)로 맞았다. 피 터지는 싸움 끝에 자기들의 뿌리인 한왕조가 멸망하고 400~500년 분열되는 시기를 가져왔다. 당(唐) 왕조 시절에는 안사(安史)의 난을 겨우 진정시킨 시집인 문종(文宗) 시기에 이른바 우승유(牛僧孺)를 중심으로 한 무리와 이덕유(李德裕)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머리가 깨지도 못 싸운 우·이(牛·李)의 당쟁이 있었다. 결국 당왕조는 사분오열되었고, 다시 150년을 지나야 송(宋)이 통일왕조를 건설할 수 있었다. 우·이당쟁이 한창 심할 때 문종은 '하북지역에서 발생한 도적을 격파하는 것은 쉽지만 조정안에서 일어나는 봉당을 없애기 어렵다.'라고 한탄한다. 당 문종은 뛰어난 황제는 아니다. 그러나 역사를 선입관 없이 있는 그대로 보니 상황을 정확히 짚었다.

이 기록을 본 송의 효종은 '그래에 사대부들은 청의(淸議)를 부르짖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말이 한 번 나오니 아마도 서로 스승이 되어 풍조(風潮)를 이루게 되지만 곧 일을 좇아서 공로 세우려 하면 외속(僞俗, 조약한 풍속)하게 되어 교격고어(矯激沽譽,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가지고 명예를 모의하여 가지는 것)한 사람을 가지고 청고(淸高)하다고 한다.'라고 당시에 걸 다르고 속 다른 풍조를 질타한다. 효종도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였다.

흥법도와 백선엽을 둔 두 진영에서 평론하는 저변에 무엇이 있을까? 그들은 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 혹은 진영의 이익을 생각한 것이라는 생각되고, 그들이 말하는 국가, 민족, 국민복을 위한다는 말이 공허(空虛)하게 들리며, 이 진영들이 봉당(朋黨)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그들을 때루보 보는 것일까? 역사를 끄집어내 진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 비빔밥의 유래와 종류(2)

청개(靑苔) 권오진(부정공파, 35세)

### 〈비빔밥의 종류〉

첫째, 골동반은 비빔밥의 다른 이름이자 가장 일반적인 비빔밥이다. 밥에 여러 가지 나물과 튀각, 계란지단, 쇠고기볶음 또는 육회 등을 섞어 비벼 먹는 것으로 제철에 나는 채소를 나물로 이용한다. 밥을 지을 때 양지머리 국물을 넣으면 밥에 윤기가 흐르고 맛이 좋아진다.

둘째, 산채비빔밥은 밥 위에 취나물, 고사리, 고비와 같은 여러 가지 산나물을 얹어 양념장에 비벼 먹는 것이다. 산채비빔밥은 스님들이 산사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산나물로 밥을 해 먹었던 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대보름날 먹는 나물을 먹는 풍속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셋째, 비빔회덮밥은 밥 위에 도라지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묵두침 등의 재료를 얹어 초고추장에 비벼서 먹는 것이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예부터 송어회, 갈치회, 준치회에 겨자를 섞어서 지금의 회덮밥과 같은 밥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넷째, 돌솥비빔밥은 곱돌솥에 밥을 하여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따뜻하게 먹는 비빔밥으로 음식이 식지 않고, 재료를 죽에서 익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다. 돌솥비빔밥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돌솥에 이미 지은 밥과 여러 가지 재료를 얹어서 비벼 먹는 비빔밥의 형태와 돌솥에 쌀과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처음부터 밥을 짓는 영양밥 형태가 있다.

### 〈지역별 비빔밥 종류〉

첫째, 전주비빔밥은 전주비빔밥의 유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17세기 무렵 전주의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상인들이 몰려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팔던 콩나물 비빔밥이 오늘날의 전주비빔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30여 가지가 되는데 계절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들이 조금씩 달라진다. 전주비빔밥의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콩나물로 예부터 전주콩나물은 인근 일대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콩을 전주의 맑은 물로 길러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쇠고기를 곱 푼 물로 밥을 고루 섞고 그 위에 양념한 황포묵과 쇠고기 육회, 달걀노른자를 얹은 뒤 약고추장과 점장 참기름을 넣어 비벼 먹는다. 이때 맑은 콩나물국을 곁들여 먹는다.

둘째, 진주비빔밥은 진주지방의 비빔밥으로 밥 위에 콩나물, 숙주나물, 근대나물, 애호박나물, 박나물 등을 색스럽게 얹어 놓고 가운데에 육회를 얹어 고추장으로 비벼 먹는다. 비빔밥의 모양이 꽃처럼 화려하다고 하며 화반(花盤) 또는 황금색의 동근 노릇에 여러 가지 재료를 얹은 모양이 일곱 가지 색상의 아름다운 꽃 모양과 같다 하여 칠보화반(七寶花盤)이라고 부른다. 진주비빔밥은 임진왜란 중 전주성 전투에서 군인들과 백성들이 일본군과 대치하면서 성에 남아있던 소를 잡아 육회를 만들고 남은 재료를 모두 섞어 비빔밥을 만들어 먹던 것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전주비빔밥은 별건곤 1929년이라는 잡지의 팔도명물 특집 기사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했고 예부터 전주비빔밥보다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진주비빔밥은 쇠고기 양지국물로 밥을 지어 그 위에 여러 가지 나물과 육회, 황포묵, 돌김 등을 얹고 엿조장



이라는 고추장에 비벼먹는다. 진주비빔밥은 나물을 무칠 때에 손가락에서 뽀얀 물이 나오도록 힘주어서 오래 안무치고 선지로 끓인 보타국을 곁들여 먹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평안비빔밥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냉면과 함께 평양의 명물로 소개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음식이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평양비빔밥은 채소로 만든 비빔밥으로 요즘 우리가 먹는 비빔밥에 여러 가지 채소에 육회 대신에 볶은 쇠고기를 얹어 먹는다.

넷째, 해주비빔밥은 해주교반이라고 하여 밥을 볶아서 비비는 것이 특징이다. 볶은 밥에 도라지 고사리 버섯 등의 채소와 해삼 전복, 조개 등의 해산물 여기에 닭고기와 달걀을 얹어 밥 속에 산해진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조선 말기 최영년의 해동죽지(海東竹枝)에 해주 지역의 명물음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밥을 기름에 볶아 먹는 풍습이 없어서 해주비빔밥이 기이한 음식으로 소개되어 있다.

다섯째, 통영비빔밥은 경상남도 통영지방의 비빔밥으로 밥 위에 생미역과 톳나물, 방풍나물을 비롯한 10가지 이상의 나물과 명령으로 얹어 비벼먹는다. 이때 조갯살을 넣어 만든 두부탕국을 곁들여 먹는다.

여섯째, 안동햇제사밥은 이름 그대로 가짜 제사밥을 말하는 것으로 진주, 대구, 안동 등 여러 지역의 유생들이 주로 먹었으며 이중 안동지방의 햇제사밥이 가장 유명하다. 이 지역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나온 나물, 전, 탕 등의 음식을 한데 섞어서 비벼 먹었는데(제사밥) 햇제사밥은 제사가 없는 날에도 제수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에서 유래했다.

햇제사밥에 들어가는 나물은 제사에 사용되는 3색의 나물거리를 골라 제사음식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파, 마늘,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회게 하며 무치는데 이때 제사상에 올리는 전과 돛배기, 고등어, 쇠고기로 만든 산적 등의 음식을 곁들여 먹는다. 고추장 대신에 간장, 깨소금, 참기름 등으로 밥을 비벼 먹고 말린 해삼, 문어, 함자, 다시마, 무 등을 조그맣게 썰어 넣고 맑게 끓인 장국(湯)을 곁들여 먹는다.

일곱째, 함경도담비빔밥은 밥 위에 삶은 닭고기를 가늘게 찢어 양념한 것과 콩나물을 끓는 물에 데쳐서 양념한 것을 얹고 여기에 닭고기 국물을 조금씩 떠 넣으면서 비벼 먹는 밥으로 함경도 지역의 향토 음식이다. 닭안반이라고도 한다.

여덟째, 거제명게장비빔밥은 잘게 썰 면게를 2~5일 정도 숙성시켜 것갈로 만든 후에 고추장 대신에 깨소금, 참기름, 김 가루 등으로 비벼서 먹는 밥으로 경상남도 거제도의 향토음식이다.

마지막으로 제주지름밥은 제주도에서는 비빔밥을 지름밥이라고 하는데 지름은 기름의 제주도 방언이다. 밥 위에 나물 볶는 것과 조개 볶는 것을 얹어 겨자와 참기름으로 비벼 먹는 것으로 환자의 회복식이나 입맛을 돋우는 음식으로 먹는다.

## 2023년도 대구종친회 명사 초청 보학 강좌 개최



안동권씨 대구종친회(회장 권오섭)에서는 8월 21일(월) 오후 2시 대구광역시 파동 장에 인복지관 1층 분관 강당에서 130여명의 종친들이 참석 가운데 권영길 전 전국국학진흥원 한국인문정신연수원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안동권씨 대구종친회 명사 초청 보학 강좌'를 권상주 사무국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권영길 전 대구광역시 시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보학강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다시 죽친 여러분을 뵈게 되어 무척 반갑고 기쁘다. 우리 안동권씨는 1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 자랑스런 역사를 보학강좌를 통해 알고 안동권씨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저도 후손으로서 안동권문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헌할 것을

약속한다. 죽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다 이루시길 바란다 말했다. 권오섭 회장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회장 취임 시 여러분과 종친회 발전을 위해 약속했던 공약사항은 남은 임기 동안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길 전 한국인문정신연수원장은 대구 종친회에서 보학 강좌 초청 강사로 불러주셔서 고맙다. 보학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뿌리를 아는 것이다. 후손들은 선조들이 물려주신 훌륭한 유산과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안동권씨 특성유래 등에 대해 강의했다.

대구종친회에서는 매년 보학강좌를 추진해 오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다 4년 만에 다시 강좌를 열었다.



권상주 사무국장

## 추밀공파 회장단 확대 회의 개최

추밀공파 회장단 확대 회의가 9월 21일(목) 11시 추밀공파총회 사무실에서 권영선 고문, 권영환 고문, 권경석 명예회장, 권오돈 회장, 권병선 장화공 회장, 권준식 정현공 회장, 권영갑 감사, 권경일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경일 처장의 사회로 개최, 시조 및 추밀공에 대한 망배, 회장 인사, 추향제 준비상황 보고, 회관 헌성금 입금 현황, 기타 토의 순으로 개최되었다.

먼저 권경일 처장은 성원보고를 했다. 경과보고에서는 2018년도 추향제 봉행과 정기총회 개최 현황, 2019년도는 돼지열병으로 자유총연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부터 3년은 코로나로 추향제를 고유제로 대체한 사실, 2023년 3월 대전 참의공 종중에서 정현공 회장단에 헌성금을 독려한 내용, 4월에는 매현공 추향 및 정기총회에서 헌성금 독려한 내용 등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했다.

권오돈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로 회의도 못했는데 오랜만이라 무척 반갑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추밀공파총회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먼저 권경일 처장이 10월 15일에



추향제 봉행을 위해 단소 별초를 했으며, 도로 보강공사를 실시했으며, 현관들의 제복을 세탁하여 추향제 준비를 8월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추향제에 참석하는 죽친들을 위해 관광버스 2대를 예약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확대회의에서는 서울시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면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1000여만 원 상당의 소요 비용이 발생하므로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10월 15일 추향제 봉행 시 정기총회를 동시에 개최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권오돈 회

장의 임기가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 추대를 안건으로 상정하며, 회장 추대라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권영환 고문이 임시의장을 맡기로 했다.

또한 추향제 현관 추천 문제와 회관 건립을 위한 헌성금 모금을 위한 광고 문제, 추향제 광고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기타 토의에서는 권경석 명예회장의 회의가 있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하루 전에 문자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권영환 편집국장